

회 향 사

우리 종단 종지인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사찰명으로 천명하는 상서로운 도량 직지사에서, 오늘 부처님의 증명하에 삼사칠증을 모시고 비구계와 비구니계를 받은 스님들에게 찬탄을 보냅니다.

아울러 제3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을 주관하신 전계대화상 고산혜원 대종사께 경의를 드리며, 단일계단 소임자 스님들의 근념과 헌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계산림이 원만히 회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직지사 주지 흥선스님과 사중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류사에서 출가수행공동체인 승가의 출현은 참으로 특별한 일입니다. 불·법·승 삼보가 자리하고 경·율·론 삼장을 소의(所依)로 하며 계·정·혜 삼학을 수학 전승함을 그 요체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교단의 유지상속에는 승단규범의 근간인 계율이 그 뿌리가 되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불교 1700년 역사는 곧 부단한 승가의 전승인 것입니다. 그 근간은 승보를 출현시키는 계율강의와 수계의식을 통한 율풍 진작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의 수계제자들은 삼계의 도사이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의 길을 함께 가는 청정 비구·비구니로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불조의 혜명을 이어가는 승가의 구성원은 마땅히 계로써 스승을 삼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계로써 생명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수계제자들은 한국불교가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대에 조응하는 교육과 포교를 통하여 인류의 문명사적인

위기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역할에 항상 진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는 바로 우리 종단 구성원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동시에 일대사를 뛰어넘겠다는 출가 수행자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계단은 시방삼보와 전계대화상께서 증명하시며 갈마아사리, 교수아사리, 존중아사리 그리고 습의사, 인례사 스님들이 자비로이 지도하셨기에 제불보살과 역대조사께서 환희하시고 사부대중이 찬탄하는 참으로 성스러운 자리로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의 장엄함을 더해주시는 계단의 모든 소임자 스님들과 종단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외호를 지도해주신 직지사 주지스님과 사중 여러분께 종단을 대표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기2557년 4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